

## 중국산 가금육 수입재개 5월 2일 부로

지난 97년 12월 30일 수입이 전면중단된 중국산 가금육이 지난 5월2일부로 전면재개되므로서 오리업계에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 2일 중국등 6개국의 국가별 가금육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하면서 그동안 쟁점이 돼 왔던 중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을 마련 시행하므로서 2년4개월동안 수입이 중지됐던 중국산 가금육 수입을 사실상 재개했다.

이 위생조건에 따라 수입이 재개된 중국산 가금육의 수출작업장은 4개소이며 이중 오리고기 수출작업장은 상해시에 위치한 상해시 대강집단(작업장 번호 3100/03021)과 하남성 하남화영금업집단(작업장번호4100/03054)등 2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서 중국산 오리고기는 빠르면 이달중에 국내에 도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본회가 지난 20일 수의과학검역원 부산지원에 확인한바에 따르면 아직까지 검역을 신청한 중국산 오리고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서 이달중 중국산 오리고기가 유통시장에 풀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업계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산 오리고기의 수입가격은 정육kg당 2-2.3불선으로 태국산 수입가격 2.6불에 비해

0.6-0.3불이 싼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는 환율 1,150원기준으로 환산시 정육kg당 2,300-2,645원선이며 관세를 포함한 도착가격은 2,875-3,306원으로 국내산에 비해 40% 저렴한 가격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로서 중국산 오리고기가 국내에 도착되어 유통되는 경우 국내산은 가격경쟁이 사실상 힘들어 국산육과 수입육과의 차별화 유통 및 수입육의 국산둔갑유통을 근절시키는등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산 오리고기 3개월간 전수검사 시행

정부 수의당국은 2년4개월만에 수입이 재개된 중국산 오리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해서 3개월간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이로인해 질병이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수의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중국산 오리고기 수입재개에 따라 질병유입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되는 중국산 오리고기에 대해 3개월간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검증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하여 수의검역당국 한 관계자는 「수입이 재개되어 국내에 수입되는 중국산 오리고기는 3개월간 정밀검사하고 정밀검사 기간은 검사결과에

따라 더 연장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당국의 이같은 방침은 중국산 오리고기의 수입재개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만일의 하나 질병유입에 의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또 가축질병에 의해 축산농가가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검역강화조치로 중국산 오리고기의 급격한 수입물량증가에 의한 사육업계의 피해는 이 기간동안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이후부터는 많은량의 중국산 오리고기가 수입될 것으로 보여 사육업계는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육용오리 새끼오리 가격 강세행진 지속**

육용오리 가격 및 새끼오리 가격이 예년에 비해 기현상을 보이면서 강세행진이 지속되고 있다.

20일 협회가 조사한 육용오리 가격 및 새끼오리 가격동향에 따르면 중부권의 경우 육용오리 가격은 4천3백원에서 4천7백원선까지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새끼오리 가격은 7백원에서 8백원 내외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출하일령도 상당기간 앞당겨져 40일령 이전에 출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호남 지역은 육용오리 가격이 4천2백원선으로 전월에 비해 큰 변동없이 움직이고 있으나 출하일령은 중부권과 마찬가지로 40일령 전후에서 출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지난 4월초순에 인상된 새끼오리 가격은 종전가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같은 육용오리가격의 강세행진은 농번기를 전후하여 출하일령이 지연되고 가격이 하락하던 예년의 경우와 비교하여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데 주목되고 있다.

특히 육용오리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40%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경제활성화 및 구제역 파동 등에 의한 오리고기 소비가 크게 증가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수입육 국산둔감 방지 위한 명예감시원제 최대 활용키로**

본회는 수입육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산물명예감시원제를 최대한 활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본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하여 지난 18일 1차로 10명의 농산물명예감시원 명단을 추천하였으며 이 회원들이 농림부로부터 감시원으로 위촉 되는대로 수입육이 원산지표시없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을 적발하여 고발할 방침이다.

### 육용오리 가격 다소 회복세

3월과 4월들어 육용오리 가격이 다소 회복세로 반전돼 거래되고 있다.

산지육용오리 가격은 14일 현재 4천2백원선으로, 종전 거래가격 4천원에서 2백원이 오른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육용오리 출하일령도 중부권의 경우 42일령 전후에서 출하가 이뤄지고 있고 영호남지역은 이보다 3일령 정도 늘어난 45일령 전후에서 출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산지육용오리 출하일령은 육용오리 부족현상이 촉발되면서 이보다 빠른 일령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농가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이 육용오리 출하일령이 빨라지면서 가격역시 오름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은 구제역 파문등으로 오리고기 소비가 크게 늘어난데다 겨울철 질병에 의한 육용오리 폐사에 의한 육용오리 출하수수가 다소 줄어든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관련하여 업계 한 관계자는 봄철들어 오리고기 소비가 다소늘어난데다 구제역파동등이 겹치면서 오리가격이 다소 회복되고 있으나 육용오리 출하수수가 증가되는 6월들어서면 약세로 이어질 소지를 앓고 있다고 밝혔다.

### 왕겨가격 크게인상

지난 2월을 전후로 인상된 왕겨값이 좀처럼 내릴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중부지역 오리사육농가의 생산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부지역 오리사육농가들에 따르면 깔짚으로 이용되는 왕겨가 봄철들어 출하물량이 줄어들면서 포대당 종전가격 1천1백원선에서 1천5백원으로 4-5백원 인상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또 왕겨값이 큰폭으로 인상된 상태에서도 왕겨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이같이 왕겨를 구하기가 어렵고 가격역시 내리지 않는 것은 도정물량이 줄어들면서 왕겨생산량이 큰폭으로 줄어든데다 왕겨를 이용한 제품이 속속개발되는 것도 왕겨부족현상을 부채질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오리고기 수입량 크게 증가 전년동기대비 70% 증가

오리고기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집계한 오리고기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1/4분기 오리고기 수입량은 677톤으로 전년 같은기간 수입량 392톤대비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액상으로는 총 1백73만9천불어치로 전년같은기간 1백15만1천불어치에 비해 5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입금액은 kg당 환산시 2.6달러로 전년 수입가격 2.93달러에 비해 0.33달러 하락한 가격이다.

이와같이 오리고기 수입량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중국산에 비해 가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오리고기 수입이 당분간 힘들다는 분석과 오리고기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오1/4분기 오리배합사료 생산량 86% 증가

1/4분기 오리배합사료 생산량이 전년 같은기간에 비해 86%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오리사육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본회가 집계한 1/4분기 배합사료 생산동향에 따르면 1/4분기 오리배합사료 생산량은 총 5만4천84톤으로 전년 같은기간 생산량 2만9천19톤에 비해 무려 2만5천65톤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어린오리가 7천8백7톤, 육용오리가 3만8천6백43톤, 육성오리가 1천4백63톤, 산란오리가 6천1백69톤을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품목별 생산실적은 전년같은 기간에 비해 육용오리사료는 101%, 어린오리사료는 85%, 육성오리사료는 57%, 산란오리사료는 31%가 각각 증가된 생산량이다.

이와같이 오리배합사료 생산량이 전

년 같은기간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지난 2년간의 장기호황에 따른 부화장들의 종오리사육량 증가에 의한 새끼생산량 증가와 사육농가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오리배합사료 생산량은 현재 종오리 사육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봄철들어 새끼생산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어 이같은 생산량 증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 국내 처음 오리고기 KS 인증품 나와 -화인코리아-

오리고기에도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를 인증하는 KS 인증품이 나와 오리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월 9일 전남 나주의 (주)화인코리아(대표 나원주)에서 신청한 한국산업규격표시(KS)에 대하여 인증심사한 결과 산업표준화법 규정에 적합하여 한국산업규격표시를 인증하였다고 밝혔다.

한식연 제2000-2호로 인증된 이 인증서에 따르면 인증품의 종류는 통오리와 오리정육 2가지 종류이며 호칭은 통오리의 경우 화인코리아 통오리, 오리정육에는 화인코리아 오리로스, 오메가오리로스, 유허오리로스, 오리불고기, 화인코리아 오리정육롤등 6개 이다. 국내 오리업체로는 처음으로 KS인증

## 오 리 정 보

을 획득한 화인코리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하여 「회사 설립이래 오직 위생적인 최고품질의 제품만을 생산한다는 회사의 이념이 오늘의 오리고기 KS인증 획득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 품질 좋고 위생적인 오리고기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4년대에 설립된 화인코리아는 I.S.O 인증과 삼계탕 KS 인증을 획득하여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10여 개국에 닭고기 오리고기를 수출하고 있으며 이번 오리고기에 대한 KS 인증 획득으로 수출에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위해 축산물 회수절차 규칙제정 농림부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통중인 축산물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하기 위한 위해 축산물 회수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3월 13일 발효된 이 규칙에 따르면 회수대상 축산물은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중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축산물(제3조)로 하고 있다.

위해축산물의 회수명령 검토(제4조)는 농림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위해축산물의 회수명령을 하

기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그에 필요한 사항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토를 요청받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지체없이 이를 검토하여 당해 요청을 한 농림부장관, 시도지사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토록 하고 있다.

또 위해축산물 회수명령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위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위해축산물회수심의회를 두도록하였으며(제5조)

심의회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위원장으로하여 의사또는 수의사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자, 축산물위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축산물위생 또는 소비자보호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에서 7인이내의 위원을 구성토록하고 있다.(제6조)

농림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영업자에게 회수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해축산물의 제품명,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회수사유 등을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제9조)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없이 회수대상 위해축산물의 유통, 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중지하고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제출토록하고 있다.(제10조)

### 새끼오리가격 종전보다 16.6% 인상

육용오리 가격이 다소 회복되면서 새끼오리 가격이 종전 6백원선에서 7백원으로 16.6% 인상돼 거래되고 있다.

중부지역의 경우 지난 4월1일과 4일을 전후하여 새끼오리가격이 인상됐다.

또 영호남지역의 경우역시 비슷한 시기를 전후하여 같은 품으로 새끼오리 가격이 인상된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새끼오리 가격의 인상은 지난해 10월 8백원선에서 11월 6백원으로 2백원 인하된 이후 5개월만에 인상된 가격이다.

**3월 중오리 PS  
6천3백45수 도입**

3월중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종자용 PS는 6천3백45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3월중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새끼오리는 영국에서 2건에 6천3백45수가 도입됐다고 밝혔다.

**오리도축 가공시설 2천1년까지  
총 91억9천5백만원 용자된다.**

오리의 위생적인 도축 및 가공에 의한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오리고기 공급을 위한 오리 도축 가공시설에 대한 자금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지

원된다.

농림부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정한 이 사업시행 계획에 따르면 올해 총사업비 56억1천만원에 용자 40억원 자부담 16억1천만원등이며 2001년도에는 총사업비 74억4천만원에 용자 51억9천5백만원, 자부담 22억4천5백만원등이다.

지원대상은 오리의 생산 도축 가공 및 판매에 이르는 계열화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로서 오리도축장 경영자 또는 생산자단체로 용자조건은 연리 5%,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된다.

자금의 용도는 오리도축시설, 저장시설, 오폐수시설 및 오리도축을 위한 기계 장비구입비 등이며 부지매입비는 제외된다.

세부사업별 지원기준은 도축시설은 용자 80%, 자담20%이며 오폐수시설은 100% 용자된다.

사업자는 혜성농산이 총사업비 24억5천만원중 17억7천5백만원의 자금이 2년에 걸쳐 용자되며 연도별 용자액은 2천년 10억, 2001년 7억7천5백만원이다.

또 화인코리아에 총사업비 1백6억원에 74억2천만원이 2년에 걸쳐 용자되며 연도별 용자액은 2천년 30억원, 2001년 44억2천만원등이다.

이 사업의 주관기관은 시 도지사이고 사업담당부서는 농림부 축산물 유통과이다.